

보도해명자료 (‘18. 11. 28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탈원전 불뚱? UAE원전 운영권 일부 佛에 넘어갔다

(‘18.11.28, 한국경제 인터넷판)

1. 기사 내용

□ 한국 기술로 건설한 UAE 바라카 원전에 대한 한국의 독점 운영권이 흔들릴 위기에 처함. UAE측이 한국전력 등 국내 업체와 맺은 60년 독점 운영권 보장을 깨고 원전 유지관리 일부 분야를 프랑스 최대 원전업체인 프랑스전력공사(EDF)에 넘겼기 때문임.

○ 11.21 Nawah는 바라카 원전의 운영 및 유지를 위한 장기(10년) 협약을 EDF와 체결

□ 한수원, 두산중공업 등 바라카 원전 운영 사업을 맡고 있는 국내 업체들은 적지 않게 당황하고 있음. 한국형 원전의 유지관리 업무 중 일부가 최대 경쟁 업체인 EDF로 넘어가게 되어서임. 한전과 UAE측은 애초 ‘16년 Nawah를 공동 설립하면서 바라카 원전 수명 기간인 60년 동안 한국이 유지보수를 포함한 운영 업무를 맡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음.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 · 한전의 입장

□ UAE 원전의 직접 운영과 관련된 계약은 운영지원계약(OSSA)과, 장기정비계약(LTMA) 두 가지이며, 이 중 운영지원계약은 지난 ‘16년 한수원과 Nawah 간 既 체결하였음

* 운영지원계약(한수원-Nawah): 계약 체결시점부터 4호기 준공 후 10년간 발전소 운영인력 등을 파견하여 Nawah의 운영을 지원 (약 9.2억불 규모)

* OSSA: Operating Support Service Agreement (운영인력 파견 등 지원)

LTMA: Long Term Management Agreement (각종 정비 · 보수 등 제공)

○ 또한, 장기정비계약은 원전 준공 이후 원전운영과 관련한 정비 업무를 수행하는 계약으로서, 현재 Nawah에서 이와 관련한 각종 세부 사항을 검토중에 있음

□ 보도된 Nawah-EDF간 계약은 발전소 직접 운영 외에 기타 추가로 필요한 일부 분야(안전, 방사능 방호, 연료주기 관리 · 환경 모니터링 등)에 대해 EDF가 엔지니어링 연구, 현장 지원, 교육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10년간 제공한다는 내용으로, 바라카 원전 운영권과 관련이 있는 계약으로는 볼 수 없음

○ 또한 현재 바라카 원전과 관련된 주요 계약(계약금액 기준)은 UAE 원자력공사(ENEC)/바라카 운영법인(Nawah)이 한전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되어 있으나 동 건에 대해서는 한전과 사전 협의가 없었으며, 이는 이번 EDF와의 계약이 원전 운영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계약이 아닌 소규모 기술자문 성격의 계약이기 때문임

○ 실제로, 바라카원전 건설 기간중 바라카 원전 건설법인(BOC) 역시 주계약자인 한전 외에도 미국, 영국 등 기업들과 일부 분야 기술지원 계약을 체결한 사례가 있으며, 한수원도 국내 원전 운영 과정에서 미국, 독일 등 외국의 업체들과 운영 지원 관련 각종 자문 계약*을 체결한 바 있음

* 운영자문, 교육, 우수사례 벤치마킹, 정비 등 관련 중장기 자문계약 등

□ 따라서 ①“탈원전 불뚱?...UAE 원전 운영권 일부 佛에 넘어갔다”, ②“한수원, 두산중공업 등 바라카 원전 운영 사업을 맡고 있는 국내 업체들은 적지 않게 당황하고 있음. 한국형 원전의 유지관리 업무 중 일부가 최대 경쟁 업체인 EDF로 넘어가게 되어서임. 한전과 UAE측은 애초 ‘16년 Nawah를 공동 설립하면서 바라카 원전 수명 기간인 60년 동안 한국이 유지보수를 포함한 운영 업무를 맡기로 계약을 체결” 및 ③“일각에서는 바라카 원전 시공 과정에서 UAE측 반감을 산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내놓고 있음” 이라는 기사 제목 및 내용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

※ 문의 :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수출진흥과 김진과장(044-203-5330)

최성준 서기관(044-203-5335)

한국전력공사 해외원전사업처

황수돈 실장 (061-345-6402)